

## '버디 8개' 고진영, LPGA 파운더스컵 2R 단독 선두...윤이나는 컷 탈락

등록 2025.02.08 09:12:26 | 수정 2025.02.08 09:40:55



[올랜드=AP/뉴시스] 고진영이 지난 2일(현지 시간) 미 플로리다주 올랜드의 레이크 노나 GC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최종 라운드 1번 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고진영은 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 공동 4위를 기록했다. 2025.02.03.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15승을 자랑하는 한국 여자 골프 간판 고진영이 새 시즌 시작부터 상승세를 제대로 탔다.

고진영은 8일(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든턴의 브레이든턴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LPGA 투어 파운더스컵(총상금 200만 달러·약 29억원) 둘째 날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잡으며 8언더파 63타를 쳤다.

중간 합계 12언더파 130타를 기록한 고진영은 전날 공동 6위에서 5계단 뛰어 올라 리더보드 최상단에 홀로 이름을 올렸다.

고진영은 오랜 시간 한국 여자 골프의 간판으로 활약했으나 지난 시즌 유독 트로피와 인연이 없었다.

지난해 6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은 양희영에 이어 공동 2위로 마쳤고, 9월 FM 챔피언십에선 연장 접전 끝에 유해란에게 우승을 내줬다.

지난 4일 마무리된 LPGA 투어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공동 4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새 시즌을 시작한 고진영은 이번 대회에서 지난 시즌 무관의 설움을 떨쳐버리고 1년9개월 만의 우승 트로피를 정조준한다.



[파주=뉴스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파주시 서원밸리CC에서 열린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1번홀에서 임진희가 티샷을 하고 있다. 2024.10.20. ks@newsis.com

고진영에 이어 임진희도 이날 버디 5개를 잡으며 순위 상승을 이끌어냈다.

중간 합계 10언더파 132타를 기록 중인 임진희는 노예림, 에인절 인(이상 미국) 등과 함께 공동 2위 그룹을 형성했다.

버디 4개, 보기 2개를 묶어 2언더파 69타를 친 이정은 중간 합계 6언더파 136타로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와 함께 공동 13위에 자리했다.

이소미(4언더파 138타)는 공동 18위에, 주수빈(3언더파 139타)과 전지원(2언더파 140타)은 각각 공동 29위와 34위에 오르며 뒤를 이었다.

반면, 국내 무대를 제패하고 호기롭게 미국 진출에 도전한 윤이나는 데뷔전에서 쓴맛을 경험했다.

윤이나는 이날 버디 3개를 잡고 보기 6개를 범하는 등 고전하며 3타를 잃고 중간 합계 4오버파 146타로 공동 94위에 머물러 컷 탈락했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10월24일 경기 용인 88CC에서 열린 덕신EPC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1라운드 1번홀에서 윤이나가 파세이브 후 홀아웃 하고 있다. (사진=KLPGT 제공) 2024.10.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dal@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